“불교 위상 높인 불교대학 효과”

호남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영암불교대학장 설도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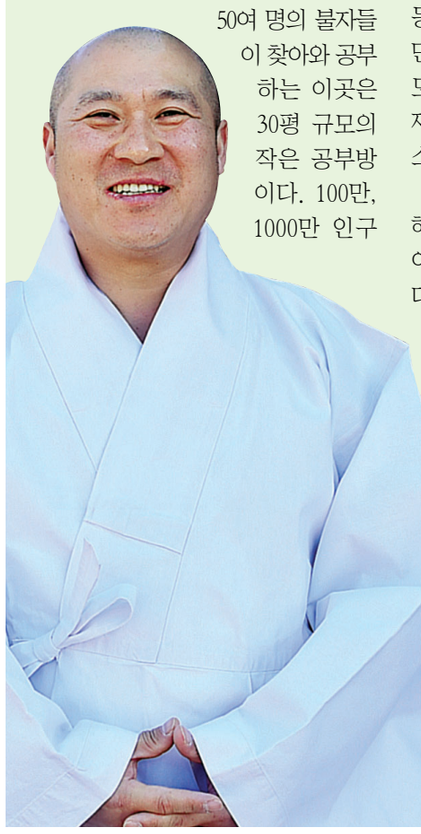
흔히 ‘산에 가보면 절을 안다’ 고 한다. 영암 월출산은 해발 809m의 비교적 높지 않은 산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산에 오르면 보통 산이 아닌 것을 실감하게 된다. 산세는 ‘호남의 소금강(小金剛)’ 이라 칭할 만큼 다양한 기암괴석으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지만 산행길은 ‘악’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험준하다.

월출산 자락 도갑사는 이런 기(氣)가 센 산의 주인이라 불리는 고찰이다. 그래서 신라 도선국사가 창건한 도갑사는 영암을 대표하는 산사이자, 최고의 문화유적지이다. 이런 도갑사는 지역불자들에게 조금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바로 영암지역 불자들은 도갑사에 대해 ‘불교세 약한 곳에서 불교대학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찰’ 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다.

대설을 앞두고 만난 도갑사 주지 설도 스님<사진>은 영암불교대학 학장으로서 지역 불교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스님은 불법(佛法)을 공부하는 참 도량을 만들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보다 오직 ‘부처님 공부’ 를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지역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읍 인구 8천여 명으로 전형적인 시골동네인 영암읍 군청 앞 작은 건물에 영암불교대학이 자리 잡고 있다. 매주 50여 명의 불자들이 찾아와 공부하는 이곳은 30평 규모의 작은 공부방이다. 100만, 1000만 인구의 대도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불교세가 약한데다가 전남의 작은 시골인구를 감안하면 ‘엄청 많은 학생들’ 의 공부 열정이 남부럽지 않다.



설도 스님은 “처음엔 ‘단체가 잘 굴러갈까?’ 란 의구심도 있었다. 하지만 지역에서 여러 활동을 하다 보니 이제는 누구나 한번쯤 가보고 싶어 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지난 7년간 여정이 만든 결과를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영암불교대학은 2010년 개강 후 7년 동안 지역에서의 도갑사 이미지를 많이 변화시켰다. 도갑사는 예전에 관광지나 종교시설로 치부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영암 하면 도갑사, 도갑사가 운영하는 불교대학’ 이라는 긍정적 인식과 함께 영암에서 반드시 가봐야 하는 곳이란 평까지 얻었다. 즉 사찰 위상이 높아진 것이다. 공무원들과 불자부부 10쌍, 가정주부 등 구성원은 많지 않지만 지역 내 불교가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증명한다.

“신도가 젊어졌어요. 그리고 포교사가 3번째 배출되면서 자원봉사활동이 많아졌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주말에 사찰을 오더군요.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사찰 구성원들이 젊어진 데 대해 설도 스님은 밝은 목소리로 힘줘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시가 아닌 군에 불교대학이 생긴 뒤 지역주민들이 불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며 불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향후 도갑사는 가족법회, 주말법회 등을 계획적으로 열어 단순한 공부뿐만 아니라 신행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사찰에서 철야정진, 수계식, 템플스테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영암은 시골이라 다른 지역에 비해 나이든 불자가 많습니다. 이들이 아름다운 회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사찰이 찾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도 스님의 말처럼 현재 영암불교대학에 다니는 중장년층은 고민이다. 그런 연유로 스님은 100세 시대에 맞춰 사찰음식, 요가, 꽃꽂이 등 다양한 문화체험과 교육공간이 활용되는 불교교양대학 운영을 꿈꾼다. 이를 위해 동문회를 만들고, 일반인들이 쉽게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구상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자비로 추위 녹이는 군산불교계

군산사암연합회, 12월 10일 저소득층 가구에 연탄 5천장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군산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연, 상주사 주지)가 연탄으로 난방을 해결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자비의 연탄을 나눠 귀감이 되고 있다.

군산사암연합회 스님들과 불자들은 12월 10일 군산시 구암동 인근 달동네 17가구에 자비의 연탄 5000여장을 전달했다.

상주사 도연 스님, 동국사 종걸 스님, 흥천사 법희 스님, 은적사 석초 스님, 정안사 정안 스님, 성흥사 송월 스님, 수도암 무진 스님 등 군산사암연합회 소속 스님과 불자 100여 명은 군산시에서 추천한 저소득층 가구를 방문해 각 연탄 300장씩 직접 배달했다.

군산사암연합회장 도연 스님은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성금 모금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연탄나눔 행사를 계획했다”며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암연합회가 처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나누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불교사암연합회 스님과 군산불교자원봉사단 불자들이 저소득가정에 연탄을 옮기고 있다.

스님은 또 “그동안 군산불교계의 대사회적 활동이 많이 미진했다”며 “사암연합회 스님들의 뜻을 모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는 일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동참한 군산불교자원봉사단 여여심 불자는 “타 종교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모습을 보고 불자로서 내심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면서 “지역불자들이 앞으로 힘을 모아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이들에게 보살의 손길을 내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사암연합회는 군산지역 종교인들과 함께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꾸준히 참여해 왔으며, 올해는 군산 4대 종교인 평화합창제를 주관하는 등 종교간 소통과 화합에도 앞장서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인재로 바르게 성장하길”

선운사, 군산여고 파라미타 학생 5명에게 장학금 전달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가 자원봉사 성적이 우수하고 문화재 애호정신이 투철한 고교생들에게 지역인재육성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선운사는 12월 11일 군산여고 파라미타 템플스테이 회향식에서 평소 돈독한 신심을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전세미(군산여고 2) 양 등 5명에게 장학금 각 50만원을 수여했다.

이 자리서 경우 스님은 “그동안 학업과 자원봉사활동을 병행하며 선운문화제 등 지역문화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군산파라미타 학생들을 눈여겨봤다”며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면서 학생으로서 본분을 잃지 말고, 지역의 훌륭한 재목으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운사는 12월 10~11일 1박2일 일정으로 군산여고 파라미타 학생 35명을 초청해 특별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선운사 스님들과 장학생들이 장학금 전달식서 환하게 웃고 있다.

모처럼 학업의 부담에서 벗어난 학생들은 원정 스님의 지도로 사찰예절습의, 예불, 108배, 단주만들기, 도솔산 트레킹, 명상, 스님과의 대화, 소원등 날리기 등의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특히 풍선에 소원을 적어 하늘에 날리는 소원등 날리기는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1박2일의 일정을 마무리한 노진주 학생은 “사찰에서의 하룻밤은 매우 뜻있는 시간이었다”며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해준 선운사 스님들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방황 않고 빛으로…”

청암봉사協, 광주소년원서 원생들에게 장학금 전달

청암봉사협의회(회장 지암)는 12월 8일 2016년 학예발표회가 있는 광주소년원을 방문해 원생 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암 스님, 월성 스님(보광사 주지), 김애준, 김도연, 김애자, 주해군, 서효숙 불자 등의 후원으로 마련된 전달식에서 지암 스님은 “늘 작은 것에 만족하고, 즐겁게 행복한 마음으로 생활하기를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전달식에서는 청암사 신도 김애준 불자가 전국 우수멘토활동으로 법무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 김애준 총무는 2006년부터 소년원생들을 위한 인생상담과 자원봉사활동을 주로 하는 멘토활동을 통해 소년원생들의 엄마 역할을 해왔다. 특히 대전 · 광주 · 전주 · 제주소년원과 여수복지공단 등에서 10여 년 동안 매월 멘토활동과 점심제공, 간식제공을 이어왔다.

김애준 총무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세상의 밝은 빛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산사 동안거 포살

12월 9일, 교구종회도

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주지 성우)가 불기 2560년 병신년 동안거 포살법회와 제4차 교구종회를 개최했다.

12월 9일 대적광전에서 봉행된 포살법회에서 포살법사로 등단한 일원 스님은 110명의 대중스님들을 향해 〈범망경보살계포살본〉을 바탕으로 〈불설범망경〉 보살심지품, 십중대계, 사십팔경구계를 설하며 계율을 받들어 지니고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교화하려는 원력을 강조했다.

일원 스님은 “포살법회는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고 정진하며 안거기간동안 수행자의 자리를 점검하는 자리”라며 “지혜와 자비로 뭇 중생을 이끌어가는 참된 수행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어 오후에는 화림선원에서 교구종회가 열렸다. 이날 교구종회에서는 2017년도 주요 종무계획안과 예산계획안의 승인에 이어 말사 종무감사 결과보고, 전북불교인 송년대법회와 신년하례법회 개최의 건, 호남 6본사 신도회 임원회의 개최의 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雲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교육시스템, 다양한 학인복지 지원의 명실공히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비구니 교육수행도량!



雲門寺

운문사 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모집대상 _ 2017년 봄 수계자 및 비구니계 수지한 스님도 가능(편입가능)
모집인원 _ 사미니과 ○○명
시험과목 _ 면접, 사미니율의, 불교 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불교의식
제출서류 _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증명사진(장삼 · 만의 착용) 2매(3×4)
5. 준비물 : 만의, 장삼, 사미니증(승려증), 필기도구
모집기간 _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 16일까지(우편, 전화, 직접 방문접수 가능)
도착일시 _ 2017년 1월 16일(음력 12월 19일) 오후 4시까지
시험일시 _ 2017년 1월 17일(음력 12월 20일) 오전 7시
교 통 편 _ 운문사 종무소로 문의바랍니다.

특전사항
1) 해외교류 대학 · 대학원 입학특전 사항 : ① 일본 하나조노 대학 · 대학원 ② 북경 청화대학 인문계열 ③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대학
2) 연수교육사항 : ① 2학년 수료 후 대만불교연수 ② • 4학년 학기 중 마하보디교육원 호스피스교육 • 4학년 졸업 후 서광스님 ‘명상 심리상담사 자격증’취득
3) 재학 중 입학금면제 · 병원비지원 · 전학년 교재 및 도서 지원 · 졸업여행비지원
4) 동국대병원과 MOU체결-매년 무료 종합건강검진 실시

운문사 승가대학 회주 법계 명성 • 학장 일진
주지 진광

운문사 한문불전대학원 • 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요강

모집대상 _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2017년도 봄 수계예정자 포함(통학도 가능함)
모집인원 _ ○○명
제출서류 _ 1. 입학원서(본 율원 · 대학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4.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5. 증명사진 2매(3×4)
모집기간 _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 16일까지 당일접수도 가능
전형방법 _ 서류심사, 면접
준 비 물 _ 가사, 장삼, 승려증
전형일시 _ 2017년 1월 16일(음력 12월 19일) 오후 2시

특전사항
1) 해외교류 대학 · 대학원 입학특전 사항 : ① 일본 하나조노 대학 · 대학원 ② 북경 청화대학 인문계열 ③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대학
2) 학업기간 중 매월 연구비 및 교재지원
3) 각종 장학금 혜택 및 종단전문습의사
4) 종단 교육연수비 지원 5) 해외 연수비지원 6)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운문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명성 • 보현율원 율주 명성
원감 진광

전화문의 054)372-8800, 054)370-7100
홈페이지 www.unmunsa.or.kr ※제출서류는 운문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